

큰스님 수행한담

끊임없이 의심하세요



1998년 백양사에서 열린 동국대 동국사상연구회 수련회때 서용스님 등과 자리 함께 했다. 맨 앞줄 왼쪽부터 법산, 중성, 서용 스님, 고희정식 박사.

그러자 선사께서 출가하여 공부할 것을 권유하시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보름에 수거독도할 것을 명하셨어요. 이때가 37세때로서 행자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수거한 셈입니다. 이후 선사를 모시고 백양사 선원에서 3하인거를 마쳤어요. 선사께서 72년도에 조계종 제5대 종정으로 추대되어 상경하시며, 서울로 오도록 명하시어 뒤이어 상경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30여년을 선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수선정진으로 지내온 것입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일단 선지식을 만나

가운데서 살아남을 얻는 사중독환(死中得活)이 되어야만 의단(疑團)을 부수고 화두를 바로 알아서 통명자기(洞明自己: 자기를 분명히 밝힘)하여야 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치고 나서도 몽산 선사(夢山禪師)는 반드시 대중장(大宗匠)을 찾아 단련하여 법기를 이룰 것이요, 조금 얻은 것으로 만족치 말고 경계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깨쳤다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깨달은 것 같아도 경계에 대하여서는 도리어 미혹하여, 말내는 것이 술취한 사람 같고, 행동이 속인과 같으며, 마음 기쁨의 숨고 나타나

화두란 의심입니다  
나를 의심하는 것이고  
부처와 조사를 의심하고  
법계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수는 심중유망(心中有妄: 마음 가운데 아직 망념이 있음)의 제망점수(除妄漸修: 망념을 제거하여 점차 닦음)인 것입니다. <육조단경>에서 육조스님께서 남악스님에게 물기를 <도리어 수증이 있느냐?> (還可修證否) 하니, 남악스님이 답하되 <수증이 없을 수 없으나, 오염은 없습니다.> 하였으니, 돈오점수와는 천양(天壤)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선계의 일각에서는 통불교를 주장하여 선교일치니, 염선일치니 주장하니 조계종의 근본 종자인 불립문자 교의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총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방종대방(妄中大妄)입니다. 화두를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화두란 의심입니다. 화두 그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고, 나를 의심하는 것이고, 부처와 조사를 의심하는 것이고, 법계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큰 의심이 큰 지리를 보게하는 것입니다.

계 탁마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격외송구(格外頌句: 격 밖의 본분도리를 제창한 송구)를 두어 수 간청하니 서용선사의 고준한 법문에 단적으로 화답한 계송 2수를 드릴까 합니다. 吾師背流水逆流(오사공제수역류) 倒騎獅子出重關(도기수미출중관) 無佛無師清風涼(무불무적청풍) 一券擊破萬層山(일권격파만층산) 우리 스승께서 즐겨 물이 거꾸로 흐르는 법문을 제창하시고 거꾸로 수미산을 타고 겹겹 관문을 부수어 나가시다. 부처도 없고 종적도 없고 많은 바람이 넘실한데 한 주먹으로 만점산을 쳐부수시다.

臨濟指揮百萬軍(임제지휘백만군) 青天霹靂平地風(청천벽력평지풍) 曹溪認鑿死中活(조동은현사중환) 咬鐵鑿鑿畢通同(준선면밀경동동) 임제는 백만대군을 지휘하는 기상이니 푸른 하늘에 벽력이 일고 평지에 풍파가 일도다. 조동의 종풍은 숨고 나타나 죽은 가운데 살아나니 기쁨이 준산하고 행자가 면밀함이 필경에는 한가지로다.

끝으로 백양사 백학봉 앞에서 고불고조(古佛古祖)의 오도기연(悟道機緣)에 화답한 격 밖의 소식을 담은 송구 하나를 붙입니다.

馬祖全提大一喝(마조전제대일갈) 吐動地又續天(토동동지우번천) 殺佛殺祖鐵樹化(살불살조철수화) 任運高歌白鶴前(임운고가백학전) 마조가 온전히 들어 크게 할을 하니 허를 토하고 귀먹으니 땅이 움직이고 하늘이 뒤집히도다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니 무쇠나 무에서 꽃이 피고 임의로 백학봉 앞에서 높이 태평가를 부르도다.

정리=정성운 기자

나의 경전

대보적경



김선근 동국대 교수·인도철학

<대보적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 설법하신 가운데 가장 중심부분인 방등부(方等部)에 속하는 경전이다. 큰 법의 보배를 한 곳에 쌓았다는 뜻의 이 경은 결코 하나의 단독경이 아니라 중국의 보리유지(菩提流支)가 서북인도(高提流支)가 서북인도 초대를 받아 황제의 명을 받들어 많은 별개의 경들을 집성한 것으로서 일종의 혼합경이다. <신수대장경> 제11권은 보적부라는 명칭으로 <대보적경> 1백20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와 관련된 단독경들을 묶어 놓았다. 이 경의 내용은 간략한 교훈들이 '10' 또는 '32' 등의 숫자로 열거된 실례가 많이 들어 있어서 이 내용 자체가 '보적(寶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른 경전들과는 달리 이 경을 형성하는 일관된 행사의 사상을 간추리기는 어렵다. <대보적경>은 49회 77품으로 구성되어 각 회는 각각 별개의 성

중에 후회하는 마음없이 보시를 행하라. 여덟째, 계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만 권함하게 치우치는 일이 없이 보시를 행하라. 아홉째, 계를 벗한 사람에게도 경멸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자비롭게 보시를 행하라. 열번째, 과보를 바라지 말고 보시를 행하라. 이것을 열 가지 참정보시를 행하는 것이라고 설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시에는 재시와 법시 그리고 무의시(無畏施)가 있다. 남에게 준다는 것은 한없이 축복된 일이고, 인간의 행동 중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행동이다. 그러나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주는 데도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남에게 베풀 때에는 위에서 소개한 내용과 같이 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나와 남과의 관계 -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남편과 아내, 친구간, 주인과 종사자, 그리고

무량수경·승만경 등 방등부 경전 집성 3법인 6바라밀 12인연등 쉽게 해설

격을 띤 다른 경들로 구성되어 있다. 실례를 들면 제1회는 <대방광사상계경>에 제5회는 <무량수경>에 해당하며, 제46회는 <7백송만야>에, 제48회는 <승만경>에 해당되고, 제12회는 <대승보살장정법경>이 들어 있다. 다시말해 <대보적경>에는 아홉대라삼삼보리를 구하는 불퇴전의 법력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하면 초기 경전의 중심사상인 삼법인, 12인연이 설명되고 무량수불의 인위(因位)에 대한 설명과 48원으로 극락세계를 장엄하는 법문이 들어있다.

스님과 신도 등 속에서 살아간다. 남과의 관계를 원만하고 따뜻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하는 것이 보시이다. 오늘 사회를 보다 혼돈하게 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 보시행이다. 왜 우리는 보시행을 실천해야 하는가 불교에 있어서의 인간 관계의 사고 방식은 이상 작용에 의한 자타의 입장의 전환을 기본으로 삼는다. 나에게 있어 자기가 더없이 소중한듯이, 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무엇보다도 소중한이다. 이 사실의 자각을 밑바탕으로 해서 보시의 당위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사랑스러운 것을 아는 사람은 남에게 보시하는 것이다.

이 많은 내용을 낱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육바라밀에 관한 해설이 들어 있는 제12회의 <대승보살장정법경>의 '보시'에 관한 가르침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경에서 설하고 있는 청정한 보시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열 가지이다. 첫째, 업보의 도리에 맞는 보시를 행하라. 둘째, 샅된 생각을 가지지 말고 보시를 행하라. 셋째, 신심과 해행(解行)에 입각해서 보시를 행하라. 넷째, 해태심을 가지는 일이 없이 보시를 행하라. 다섯째, 상을 내지 않고 보시를 행하라. 여섯째, 항상 용기와 의욕에 차서 보시를 행하라. 일곱째, 도

필자는 지천명을 훨씬 넘은 나이지만 지금도 인연있는 분들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 내가 베풀기 보다는 받는 편이 더 많다. 그래서 나는 빛을 지고 사는 삶을 산다. 가끔 인연있는 분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무력함을 느낄 때마다 <대보적경>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깨우치곤 한다. 이 경의 가르침을 수지속속하면 할수록 맑은 감로수를 마시는 것과 같이 나의 정신적 갈등이 해소됨을 느낀다.

조금 얻은 것에 만족하면 도리어 미혹 선지식 지도따라 이론과 실천 하나로

화두견처를 인정받지 못하면 옳다고 인정받을 때까지 줄곧 떠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해야 할 것이며, 공부가 익기 전에는 돌아다니지 말라는 조사스님들의 엄훈을 따라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처음 서용선사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때 떠나버렸다면 공부에 큰 진전이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다시 깊이 참구를 해보니 종전의 깨침과는 다른 높은 차원의 공부가 있음을 알겠더군요. 무릇, 화두공부의 철칙은 먼저 움직임을 떠나 고요할 때 한결같은 동정일여(動靜一如)의 과정을 거쳐서, 다음으로 꿈속에서도 공부가 한결같은 몽중일여(夢中一如)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잠이 깬 뒤에서 꿈도 없는 데서 한결같은 숙면일여(熟眠一如)의 경지에서, 다시 죽은

활용을 알지 못하고, 법을 말하며 사(邪)와 정(正)을 알지 못하니 이는 모두가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 말후대사(末後大事)를 마치지 않는 까닭으로 이론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남자들은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경계를 경계할 것이며, 아무나 함부로 초불월조(超佛越祖)의 수작을 지껄이지 말아야 합니다. 행해(行解)가 상응해야 함을 조사스님들이 역설하신 것입니다. 특히 요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돈오점수를 오후보임(悟後保任)으로 잘못 알고서 돈오돈수의 원증원수(圓證圓修: 증득함이 원만하고 닦음이 원만함)와 혼동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돈오돈수의 오후보임은 원증원수의 불오염수(不汚染修: 더럽혀 물들지 않는 닦음)요, 돈오점

임신년(1992) 남월 팔일에 서용선사께서 '부처님의 정법을 제산장실(濟山正室, 제산은 출남의 법호)에게 부촉하시는 전법계송을 주시니, 서울의 관악산 기슭에서 임제선원을 개당하여 장안의 수재들과 지성인들이 모여들어 정통조사상을 편 지도 어린 10여 성상이 넘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선조사(先祖師) 만암대종사(曼庵大宗師)의 문집을 편집 출간하였고, 요즘은 서용대종사의 문집을 결집 편찬하는 일로 여념이 없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위로 은법사(隱法師)이신 서용선사께서 계시니 큰스님을 모시고 보좌하며 공부할 따름이지 아직 나같은 사람이 외람되어 앞에 나설 때가 아니므로 공개적인 법문은 고사하지만, 그러나 기자가 뒤에 공부하는 남자들에게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